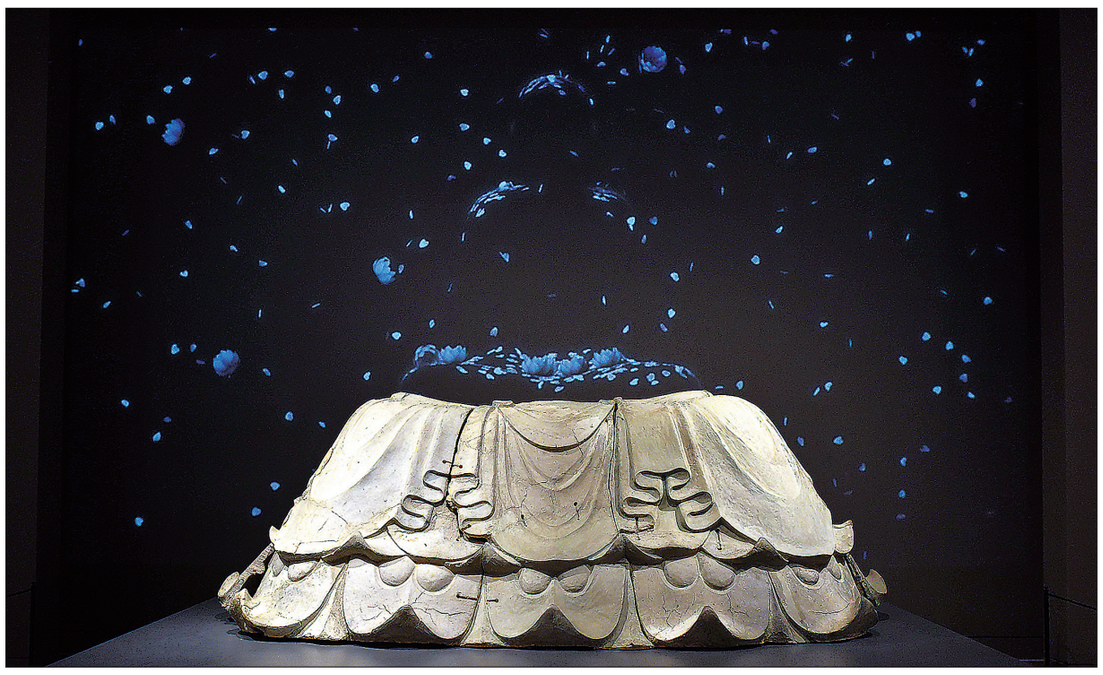
흙 속에 담긴 백제인 지혜…불상대좌, 연꽃수막새

국립부여博 '백제 기술, 흙에 담다' 展
2023년 1월 29일까지 기획전시관서

'백제의 돌'에 이은 시즌 2 '백제 흙' 주제
흙 다루는 기술 · 소조상의 예술성 조명
본의리 가마터 출토 '소조 불상대좌' 백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양 본의리 가마터 출토 소조 불상 대좌.

국립부여박물관은 1월 29일까지 특별전 '백제 기술, 흙에 담다'를 개최한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 기술(技術, Technology)을 조명하는 연속 작업으로, 지난 해 시즌 1 '백제의 돌' 전시에 이은 시즌 2 '백제 흙' 주제의 전시다. 전시에서는 백제인의 흙을 다루는 기술과 흙으로 만든 소조상의 예술성, 그리고 흙을 다루는 기술을 매개로했던 백제와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조명한다.

청야 본의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소조불상대좌' 등 25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백제인이 흙을 다룬 기술과 그 기술을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백제 소조상의 예술성에 대해 소개한다. 세부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1부 '흙에 아름다움을 담다', 2부 '흙에 지혜를 담다', 3부 '흙에 그림을 담다', 4부 '흙에 기술을 담다', 5부 '흙에 시간을 담다'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흙에 아름다움을 담다'에서는 도자기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백제 최상급 토기와 함께 익살스러운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호자(虎子), 굴뚝(煙家) 등을 소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흙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백제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2부 '흙에 지혜를 담다'에서는 백제시대 사찰에서 발견된 소조상을 보여준다. 컴퓨터 단층촬영(CT)과 X선 투과촬영, 전자현미경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그동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소조상의 내부 구조를 디지털로 선보인다. 또한 청야 본의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소조 불상대좌'는 이번 특별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발견 이후 대좌 내부를 최초로 공개하여 두드린 흔적, 손가락으로 누른 흔적, 글자새김 흔적 등 다양한 제작기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조불상대좌는 1986년 청양군 본의리에 있는 백제시대 가마터에서 파편 상태로 수습됐으며, 복원을 통해 높이 100cm, 폭 280cm의 초대형 불상받침으로 밝혀졌다. 좌우대칭의 옷자락이 가지런한 아름다움을 보이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주름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법륭사 금당석가삼존 등 일본의 불상받침에 전승된 것으로, 당시 백제 불교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 시기는 백제 말기인 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중국 동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를 수용했다. 웅진백제기(475~538)에는 대통사, 수원사 등의 큰 사찰이 조성됐다. 사비백제기(538~660)에는 불교문화가 꽃을 피웠다. 백제 특유의 우아하고 세련된 양식이 성립됐고,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옛 백제지역인 연기를 중심으로 불비상(佛碑像)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불상도 제작됐다. 서혈사지, 주미사지에서 발견된 불교미술품으로 남북국시대에도 불교가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3부 '흙에 그림을 담다'에서는 건물 내부를 장식한 벽화와 벽돌을 소개한다. 특히 부여 외리(外里) 유적지에서 출토된 백제 무늬 벽돌(百濟 文樣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식 벽돌'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4부 '흑에 기술을 담다'에서는 백제가 중국 남조 양나라와의 기술 교류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에 문화를 전달한 대외교류에 대해 조명한다. 백제식으로 해석한 연꽃무늬 수막새 등의 기술 전파 과정을 화려한 디지털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막새기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수막새는 목조건축물 지붕의 기왓골 끝에 사용됐던 기와로, 기와의 기능에 염원과 예술성까지 담고 있는 특별한 기와라고 할 수 있다. 백제 기와의 출현은 3세기 후반경으로 고구려와 낙랑,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한성도읍기(B.C18~475)에는 연꽃, 동전, 풀꽃, 도깨비 얼굴 등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가 사용되다가 웅진도읍기(475~538)부터 연꽃무늬 수막새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백제의 독자적인 형식이 본격적으로 성립됐다.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의 가장 큰 특징은 꽃잎의 끝부분을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했다는 점이다.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단아해 세련미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5부 '흙에 시간을 담다'에서는 백제 소조상의 특징인 사실적인 표현과 골조가 확인되는 백제 이후의 소조상을 소개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백제인이 흙을 다룬 기술 전통을 살펴본다.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인들은 흙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이해가고 있었으며, 흙에 지혜와 노력을 담아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만들어냈다. 이번 특별전에서 흙으로 빚은 백제의 문화유산을 감상하며, 백제 사람들이 흙을 다룬 최고의 기술과 예술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41)833-8562.

해인사, 승보 건칠희랑대사좌상 친견 전시


건칠희랑대사좌상(고려, 10세기, 건칠과 나무에 채색, 높이 82.4cm.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지정기념
11월 30일까지 해인사 성보博 특별전시실
현존 最古 목불상 역사적 학술적 가치 커
문화재청, 9월 1일 국보로 지정예고 밝혀

개산 1220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기념법회와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는 해인사(주지 현응)가 대비로전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해인사는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 대비로전 앞마당에서 대비로전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지정 축하 다례 행사를 개최했으며, 11월 30일까지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적광) 특별전시실에서 승보 건칠희랑대사좌상 친견 전시를 개최한다.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우리나라 목조불상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완성도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불상내부에서 발견된 묵서 기록에 의하면 불상은 중화(中和) 3년(883년)에 조성된 것으로, 현존 최고(最古) 목조불상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문화재청이 지난 9월 1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건칠희랑대사좌상 역시 2020년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희랑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었던 학승으로,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하며,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랑대사상은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초상조각상이다.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비로전 쌍둥이 목조비로자나불좌상[佛]과 고려대장경판[法], 건칠희랑대사좌상[僧]이 모두 국보로 승격됨으로써 해인사는 불 · 법 · 승 삼보(三寶)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국보를 모두 보유한 대가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박재완 기자

'동아시아 민화의 뿌리-중국 년화' 展

십일면관세음보살 등 70여 점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12월 31일까지 한 · 중 수교 30주년 특별전 '동아시아 민화의 뿌리-중국 년화'를 개최한다. 원주세계고판화문화제의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년화 2000여 점 중에서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을 중심으로 7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텐진 양류청에서 청나라 초기에 제작된 화조도 6곡병풍이다. 판화로 제작된 가장 아름다운 화조도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지금까지 세계에 소개된 작품도 총 10여 점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서양의 동판화기법이 가미된 청나라 중기 소주 도하오에서 생산된 세계적 판화 소주 년화 중 '수' 문자도와 유명희곡인 호접배 년화, 담랑(사마귀), 삼동도 등이 소개되며, 양류청의 고사년화인 진시황, 희곡년화인 삼국지의 토형주, 동자도년화, 목판년화를 대신하여 서양에서 전래된 새로운 인쇄방법인 석년판화가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고사년화 삼국지 장판파 석판년화와 신상지 마류인 십일면관세음보살 석판화도 소개된다. (033)761-7885.


십일면관음(석판화,중화민국).

박재완 기자

